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com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그렇게 내뱉서 했던 말을 못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공해서 참나찰나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냈을 때 내가 떼어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요. 그죠? 여기 올라올 때 발자국을 떼어놓고 올라왔을 텐데 그 많은 발자국을 떼어놓으면 서 어떤 발자국 한번 떼어놓을 때 내가 떼어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공해서, 나쁜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 자기'가 남을 위해서 과거의 업을 그냥 멸해주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것이 입력이 됐든 그 입력을 지워주는 거죠. 그 지워주는 역할이 능력이 있어야 지워지지, 능력이 없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이 사람을 시집을 보내니 내가 먼저 시집을 가야겠다. 하하하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심부름꾼이라도 그런 건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경지에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어허,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또 해봤다고 할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도 무궁무진하게 자유의 용무를 해나가고 있을 거예요.

▲질문5: 보통 수계식을 하면 큰스님께서 저희에게 법명을 내려주실까요? 그 법명을 보면 저희는 그냥 한문 뜻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오계를 받았어요?

▲질문3: 예.

▲스님: 그럼 그걸 내가 할 소리예요? 오계를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게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방편이죠. 묵묵히 힘이 없이 무주상 보시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의 이미 그 이상 가는 거죠. 그러나 받는 게 더 낫죠.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향을 피워 드리니까요.

▲질문5: 이렇게 큰스님을 빌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공주에서 온 법우입니다. 제가 큰스님께 여쭙고 싶은 건 큰스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발에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너무 많이 나면 좋은 풍자를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는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도 너무 많으면 그렇게 솎아 내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내서 관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스님: 그래요.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이는 것도 있죠. 그게 법이예요. 그래서 법을 깨우쳐서 공동공법으로 앉아 계시면 부처고, 그 공법을 행하면은 그냥 법신이구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몸통으로 뛰어다니는 건 바로 보현 화신이구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 생물이 사는데 '서로가 그냥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연쇄적으로 죽으면서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습니다. 전세계를 볼 때 어떤 나라에서는 물어죽는 나라도 있고 싸움이 지금 나는 나라가 많죠. 만약에 조금만 집 한 구석에 그렇게 인종이 많기 생길 때는 이 자연법칙으로써 채소 속내내듯 하거든요. 이게 법이예요. 자연법요. 이 그릇에 더 담기지 않으니까요. 그릇에 담긴 만큼만 놔두는 게 자부 속내내는 이치니 마찬가지죠. 만약에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일 수 있다면, 그건 소를 위함도 되구 대를 위함도 되는 거죠. 모두를 건지는 길이지요. 알고 본다면.

※위 법문은 1997년 11월 2일 전국청년회 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몸속 의식 다 조복받아야 견성이뤄

15면에서 계속

해서 씻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돼서 현재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씨가 없어도 아니되고 발이 없어도 아니되고, 그럴 질문하시길 바래요.

▲질문1: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자신의 관념과 습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저의 모습과 내가 아닌 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을 회향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식 자리를 깨우치기 위해 바깥의 인연이나 인정하기 싫은 모습으로 공부가 다가올 때는 쉽게 속아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나마 물러설 수 없는 줄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가끔씩 저 자신을 놓고 보면 '참, 내가 발목이나 담그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앞뒤 없는 공부하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바라옵나.

▲스님: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 그런 것이 인생이구요. 그런데 앞뒤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떼어놓고 가는 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놀이 한생각이, 즉 말하자면 가는 놀이 가는 놀이한데 거기다가 일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골장 거기에 연락이 되죠. 어느 학생이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공부가 안되죠. 그러다 이 공부를 하게 돼서 주인공과 더불어 주인공에 맡기고 '주인공이 해! 주인공이 할 수밖에 없잖아!' 하니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말을 씩 빨리 배우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 안에 '참나'의 마음은 수 없는 광년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지 들지 않는 것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게끔 자주 지혜를 불러 넣어주니까 빠를 수밖에.

▲스님: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고 한 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무시하진 않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귀머거리한테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죠. 그렇다고 천둥 번개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발판을 세우고 자유스럽게 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중하는 가난해도 행복하지만 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쫓달리면서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다 부자예요. 그러듯이 하여튼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이 항아리 속에서, 내 이 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도 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예요.

▲스님: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송구스럽고 괴로움에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데 어떠한 게 닦쳐오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끌어가라' 수 있어. 꼭 너만이 이것을 꼭 해야 돼. 난 손만 빌려 줄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좀 여유있는 마음으로 써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시해발로 '왔다' 죠.

▲질문2(남): 저는 총남 공주에서 사는 장호석이라는 학생입니다. 작년 11월 경에 금강경 테이프를 듣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도 안 느껴지고 육신도 없는 듯한, 그리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오빠' 하는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 아침이네요. 물었다니 겨우 한 두시간 정도밖에 안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번 그런 일이 있었고 책에 나오는 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

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견성을 못한 사람이 견성에 대해서 그 이해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지금 견성이라는 말 했죠?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남에 의해서 견성이예요. 즉 말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들을 다 조복을 하고 또 나가서는 거기에서 조복을 하게 되면 자기 주인공과, 즉 자부와 자기 육체와 둘이 아니게끔 만남이 있죠. 그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게 견성의 진로를 쥐고 나가는 거죠. 해보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

이 세상에
 나온 곳이 없기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참나찰나 돌아가니
 그것마저 없고
 한발짝 떼어놓은
 사이도 없다

산을 갔다 왔던가 미국을 갔다 왔던가 해 어떤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말을 하지. 갔다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짐작하고 알고 스스로 조복이 되고 스스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돌 아니게 걷고 있죠. 그걸 얘기로 할려면 그렇게 어렵죠. 우리 몸 안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 몸통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한 개체죠. 한 개체내 그 생명들의 집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집이예요. 집합소죠. 그런데 그 집합소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전부 이 거죽의 내 몸통이로서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심부름을 안해줘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작용을 못해줘요. 여기서 주면은 작용을 해주고 여기서 안 주면 그냥 송장이 되는 거죠.

▲스님: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나 나나 서로 도와주는 형국이죠. 서로 도와주다보니까 인제 그 양면을 다스리는 내 선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부이라고 하지 마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선정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선정으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로 한생각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객경을 봐, 너 얼굴이나 내 얼굴이 나 똑같이 있는데,' 하고 보면 견성이죠? 색경을 보는 놈도 그렇고 비치는 놈도 꼭 말하자면 환상일 뿐이죠.

▲스님: 그러니까 자주 점프해 가면서 일으키고 작용시키고 하는 고뇌는 바로 색경을 봐도 비치지 않아요. 그냥 당시 마음의 거울이 다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들어서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데 그 이름만 들어서 견성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대신 견성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공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없든 있든,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체만 꼭 믿고 하세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걸 듣더라도 어떠한 경을 보고 놀라더라도 자기 주체에도 놓고 평등하게 공부로 그냥 가세요.

▲질문2: 두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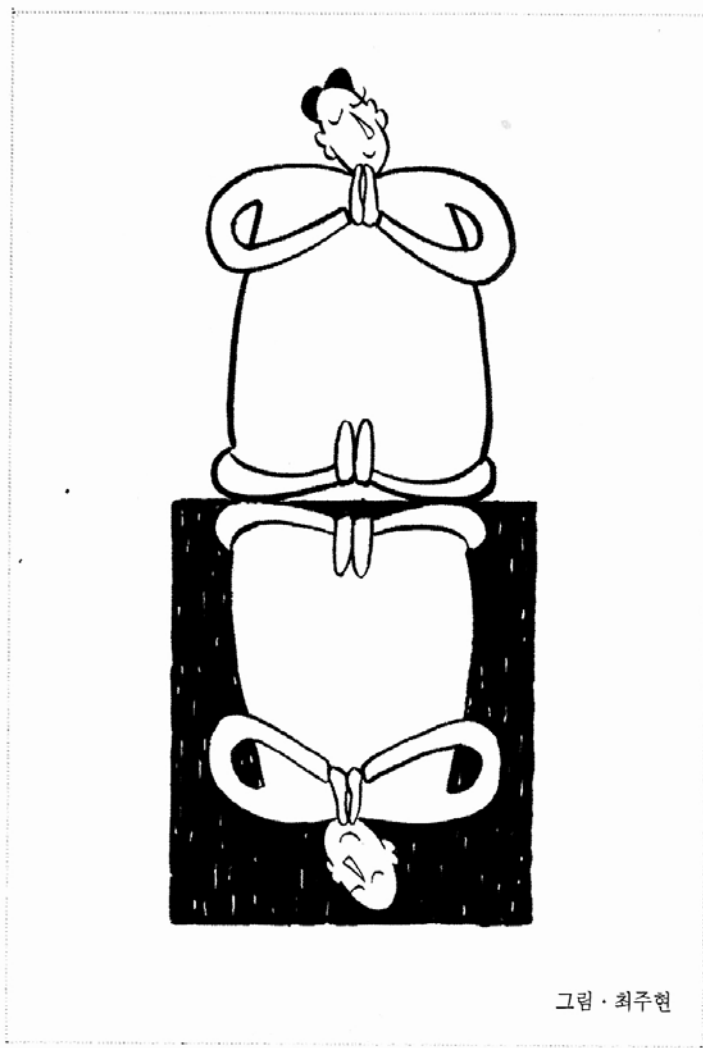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것도 좋게 굴러 놓으면 살기 편해지고 오싹통 보이죠

이것은 책에서 본 건데요. 견성하면 커다란 환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확실하 견성하면 나타나는지요?

▲스님: 그거야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지. 금방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댄다 해도 자기가 환희심이 나면은 그냥 환희심이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든지 여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환희심이에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닦쳐도 자기는 여유있게 환희심을 가지기 때문에 돌로 보지 않는 거죠.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장이 어려웠다면 나도 저랬을 거다. 만약에 내가 굶는 거보다도 자식들이 굶어서 부항이 나서 죽게 된다면 나는 저거보다 더 했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써 환희심을 일으킬 수도 있죠.

▲스님: 그러니까 환희심이라는 것이 꼭 잘돼서만 이 환희심이 아니라 즉한 사정이 있어도 환희심은 있어요. 그게 지혜로써 물리가 터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죠. 여유있게.

▲질문2: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하지 않고서도 견성이나 성불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학생은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는구만. 그것을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지. '나는 세상 바깥에 나온 예도 없어서 들어갈 때도 없다.' 아주 딱 붙여버리지. 그러구 '세상에 나와서 걸려온 예가, 한

발짝도 걸려온 예가 없어서 나는 한 예도 없다.' 이렇게 말아야. 그러하면 아주 견성 성불이 완벽하게 도야. 그냥. (대중 박수) 허허...

▲스님: 그걸 알면 된다고 그랬지? 지금 현재 생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것처럼 되었고 그냥 화해서 나뉘면서 돌아갈 뿐인데 그걸 알면은 그대로 견성하는 거 아니야?

▲질문3: 저는 부산 지역에서 왔습니다. 오늘 스님 설법중에서 그 답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음공부가 하고 싶고 또 도반이 좋아서 같은 청년회 법우로서 부부 인연을 맺은 법우들이 많습니까. 저도 그 법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 도반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각자의 뜻으로 돌려놓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걸림없는 좋은 부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스님: 그거는 마음을 내고 안 내고 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친근하게 생각이 되고 차원끼리 만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보

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보이는 불쌍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싸서 주인공에다 놓으면 그냥 삼세가 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번 탁 내주면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맘다 이쁘다 이런 모든 것을 봐라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스님: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놔서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이되니까 그걸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믿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관한다면은 거기까지 붙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성가시게 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자는 대로 되는데 왜 걱정이예요?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쁜 것 잘생겼든 또는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것도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들게 돼있어요.

▲스님: 그러면 어떠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덕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억을 진화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살아온 그 장본인이 자기 몸을 자기기가 형성이켜놓고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도 좋지만 자기 자부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구요. 모두, 하여튼 이 공부할 때는 한눈 팔지 말고 꼭 열심히,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참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그것마저 없더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은 사이도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질문4: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제가 질문 올리고 싶은 건 결혼해서 보통 얘기를 남게 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양부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자식이 지체하거나 정박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님을 낳을 때 바로 육년 동안이나 지극하게 정성을 들였죠. 좋은 영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오래 기다린거죠. 그것도 여러분의 태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큰 자식을 두느냐 작은 자식을 두느냐, 박아락을 두지 않느냐 두느냐가 달랐습니다. 이런 일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병원에 가보구서 이게 정상이 아닌 어린이가 들어서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인데 그렇다 말아야.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다구요. 정말 정상이 돼서 정상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도 정상인 줄 알고 관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모든 걸 타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한다면 아니되죠. 그러나 그것을 왜 내가 마음을

가짜본 인연을 보듯 고요한 현실에 함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IS 288쪽
 값 6,000원
 어사아운